23-13 2023.09.25

현안과제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 기대 속 장기 저성장 우려 차단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 기대 속 장기 저성장 우려 차단 필요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1

2. 전망의 배경 ····· 8

2.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10

3. 시사점 ····· 13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 기대 속 장기 저성장 우려 차단 필요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부문은 하반기 반등이 기대되었던 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총수요를 크게 확장시킬 여력이 약해 보인다.

소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7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2%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는 수출 및 내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비 기준 -8.9%로 이는 11년 4개월만 최대 감소 폭이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여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될 전망이다.

건설경기는 현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급락으로 향후 심각한 침체가 예상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는 등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수출 경기는 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침체가 1년 3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1년 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고용시장은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면서 산업간·연령층 간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8월 중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4.4%나 상승하였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4%로 전월(2.3%) 대비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개선세가 정체되는 모습이다. 가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8월에 103.1p로 7월(103.2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한은 BSI(전망)는 8월 73p에서 9월 73p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 전망의 배경

20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회복세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복합불황의 지속, 주요국 통화긴축 누적효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과 같은 리스크로 인해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4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전환(pivot), 제조업 경기의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선진국 통화긴축의 누적효과 등으로 회복 정도는 기대보다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과잉대응(overkill)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의 피크아웃(peak out)으로 가파른 경기 둔화세는 회피할 수 있어 보인다. 신흥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개선과 함께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 간 성장세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는 물론 미·중 갈등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 회복 기대감 역시 현재로서는 큰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및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같은 하방압력이 회복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의 완만한 개선과 이로 인한 제조업 경기의 반등,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기대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복합불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저점 형성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 향방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고점 형성 후 23개월간 하락하였으나, 올해 4월 저점(98.5p)을 기록하고 3개월간 상승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생산지수(3개월 이동평균, 원지수) 역시 올해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부진세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아직 내수와 외수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저점 형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소매판매와 수출 감소세 지속과 함께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5월 이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과거의 추세와는 달리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2024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상 상반기 성장률(2.3%)이 하반기(2.1%)보다 높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 상반기의 낮은 성장률(0.9%)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소비는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인해 가계 소비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고금리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의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부문의 누증된 부채와 이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은 민간소비 회복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금융 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내년 건설투자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증가세는 2023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과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반도체 갈등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설비투자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입의 경우 2023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은 2024년 세계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수입수요가 소폭 반등하고,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경기침체,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과 같은 하방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입 또한 2023년 대비 국내 투자심리와 수입 수요가 일부 개선되면서 증가세 전환이 전망되나, ICT 투자 침체 및 건설수주 불황 심화 등 국내 경기 여건상 수입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수지는 수출 반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허용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폭 완화 등으로 2023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대비 미흡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여행수지 적자 완화 효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유국 감산 기조 지속에 따르는 유가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으로 인해 상승세 둔화 폭

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고용여건은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증가세 전환이 기대되지만,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조업 및 건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시장 전반이 기대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구 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6**	0.9	1.5	**1.2**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1.3	**2.2**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0.5	**1.2**	-0.5	1.5	**0.5**
설비투자 (%)	**-0.9**	5.3	-5.4	**-0.1**	-2.0	5.0	**1.5**
수출증가율 (%)	**6.1**	-12.4	-2.1	**-7.4**	12.5	5.6	**8.9**
소비자물가 (%)	**5.1**	4.0	2.7	**3.4**	2.7	2.4	**2.5**
실업률 (%)	**2.9**	3.0	2.7	**2.8**	3.2	2.6	**2.9**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2024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024년에도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선순환 고리 형성의 출발점인 수출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투자 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원자재 가격의 재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 공급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비용전이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실물은 물론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려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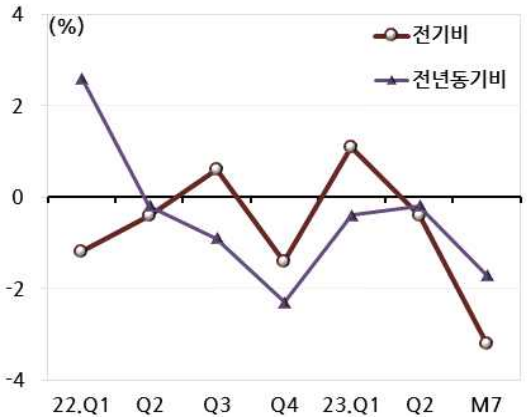
1. 최근 국내 경기 동향[1)]

○ (소비 급락) 소비 침체가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침체 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심리적·경기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7월 소매판매는 일시적 영향과 더불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
  - 7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2%로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침체를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1.1%, 2분기 -0.3%, 5월 0.6%, 6월 0.9%, 7월 -3.2%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0.4%, 2분기 -0.2%, 5월 -0.6%, 6월 1.5%, 7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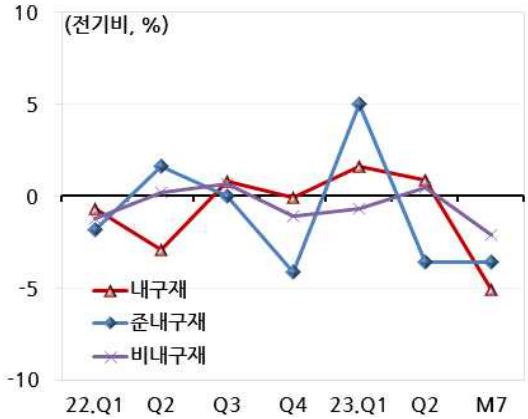
- **준내구재, 비내구재 그리고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까지 큰 폭으로 감소**
  - 내구재 소비는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가전제품 등이 감소하여,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5.1%)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1.6%, 2분기 0.9%, 5월 0.4%, 6월 4.8%, 7월 -5.1%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0.7%, 2분기 0.5%, 5월 0.5%, 6월 -0.4%, 7월 -2.1%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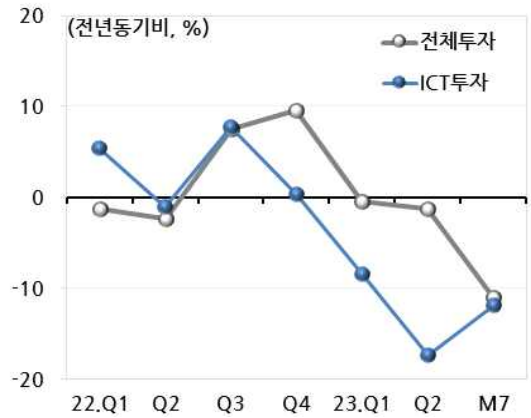
1)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3분기)," 경제주평을 발췌·재인용하였음을 밝힘

○ (11년 4개월 만 최대 폭의 설비투자 감소) 내외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설비투자가 급감

- 7월 설비투자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기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비 -8.9%(11년 4개월 만 최대폭 감소), 전년동월비 -11.0%를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0.5%, 2분기 -1.2%, 5월 -4.9%, 6월 -2.4%, 7월 -11.0%
  · 특히,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는 전년동월 기준으로 2022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8.5%, 2분기 -17.4%, 5월 -15.9%, 6월 -18.2%, 7월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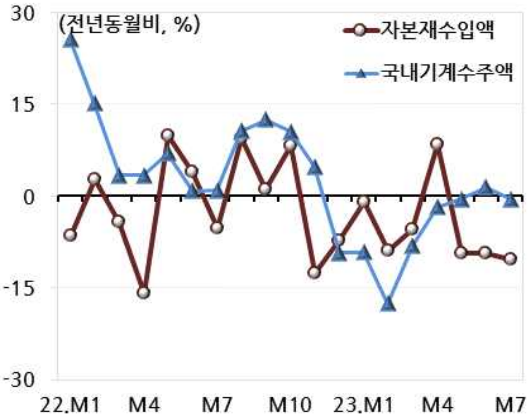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될 것임을 시사
  · 자본재수입액은 지난 4월 소폭 반등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4월 8.5%, 5월 -9.3%, 6월 -9.4%, 7월 -10.3%, 8월 -21.0%
  · 7월 국내기계수주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침체국면으로 판단됨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2]: 4월 10.2%, 5월 -4.8%, 6월 -1.0%, 7월 4.4%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 수주 절벽)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이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급감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최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12.8%로 증가세를 지속 중임

  ※ 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17.3%, 2분기 11.7%, 5월 8.2%, 6월 11.2%, 7월 12.8%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감소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감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4.5%, 2분기 -0.3%, 5월 -3.6%, 6월 -0.1%, 7월 -3.3%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20.9%, 2분기 15.2%, 5월 11.2%, 6월 14.8%, 7월 16.1%

-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이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침체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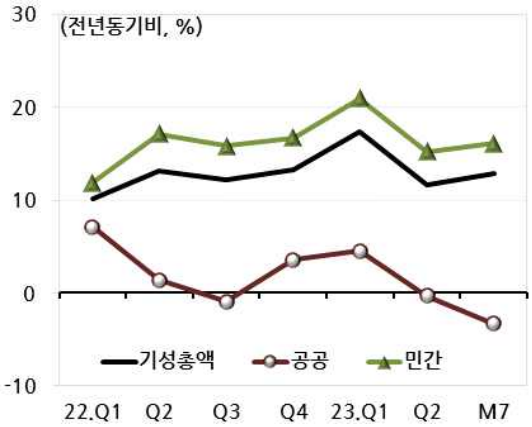
  · 7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55.3%(공공 -16.1%, 민간 -60.2%)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함

  ※ 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11.1%, 2분기 -31.5%, 5월 -18.8%, 6월 -29.9%, 7월 -55.3%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28.9%, 2분기 27.8%, 5월 47.5%, 6월 26.9%, 7월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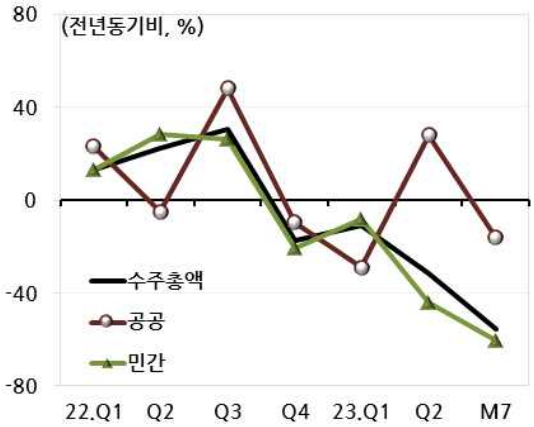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8.1%, 2분기 -44.1%, 5월 -33.8%, 6월 -43.9%, 7월 -60.2%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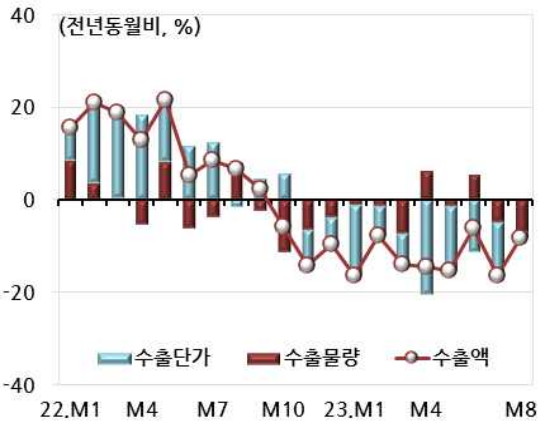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침체 지속)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별로는 중국,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8월 수출증가율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
  ·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비 -8.4%로 지난 2022년 10월(-5.8%)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액 증가율: 3월 -13.9%, 4월 -14.5%, 5월 -15.4%, 6월 -6.0%, 7월 -16.4%, 8월 -8.4%
  · 한편, 8월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동시에 감소하는 전형적 불황 국면을 보임
    ※ 수출 물량 증가율: 3월 -7.3%, 4월 6.2%, 5월 -1.4%, 6월 5.4%, 7월 -5.0%, 8월 -7.1%
    ※ 수출 단가 증가율: 3월 -6.6%, 4월 -20.6%, 5월 -14.0%, 6월 -11.4%, 7월 -11.4%, 8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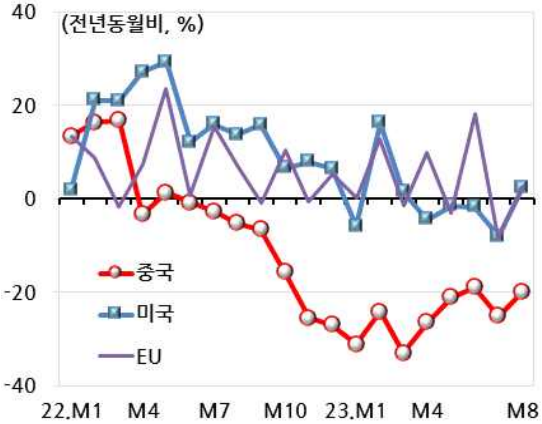
- 對중국 수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EU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
  · 8월 중 최대 시장인 對중국(-19.9%)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미국(2.4%), 對EU(2.7%) 등의 수출은 증가함
    ※ 對중국 수출증가율: 3월 -33.0%, 4월 -26.5%, 5월 -21.1%, 6월 -19.0%, 7월 -25.1%, 8월 -19.9%
  · 품목별로는 8월 중 자동차(28.7%), 선박(35.2%), 일반기계(7.7%)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20.6%), 석유화학(-12.0%), 철강(-11.2%) 등의 품목이 감소함

< 월별 수출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 시장의 양극화)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

- 8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3]도 하락

  · 8월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2022년 8월 2.1%)에서 개선되었으며, 8월 확장실업률도 8.5%로 전년동월의 9.8%보다 하락함

- 8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26만 8,000명으로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력 산업(제조업 및 건설업) 및 핵심 연령층(25~49세)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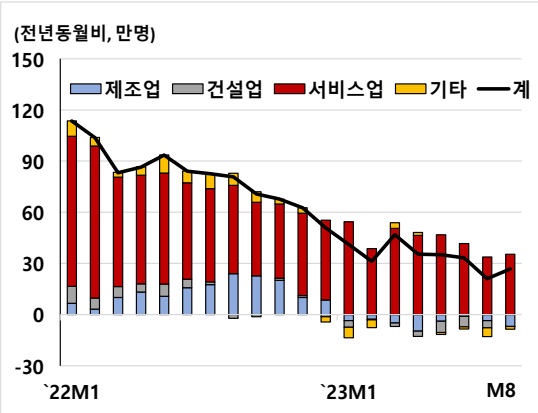
  · 8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26.8만 명으로 2021년 3월 이후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취업자 증감(YoY): 4월 35.4만 명, 5월 35.1만 명, 6월 33.3만 명, 7월 21.1만 명, 8월 26.8만 명

  · 8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6.9만 명, 건설업 -0.1만 명, 서비스업 35.4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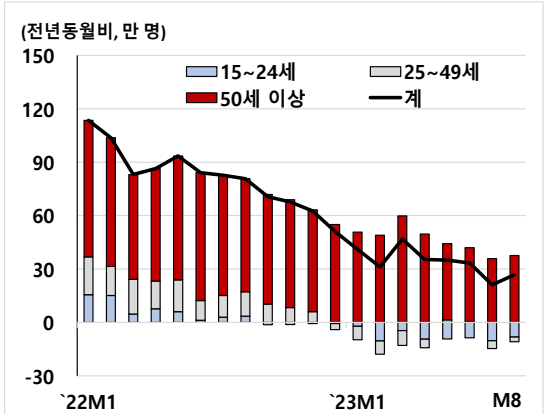
  · 한편, 핵심경제활동 연령층(25~49세) 취업자 수는 8월 전년동월비 -2.6만 명이 감소했으나, 50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37.6만 명이 증가함

< 주요 산업별[4]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3)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4)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으로 확대

- 8월 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오름세 확대, 생산자 물가는 상승세로 전환

· 8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자본재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원재료·중간재·소비재 물가가 모두 하락하여 -9.0%의 감소세를 기록함

※ 수입물가상승률(YoY): 5월 -12.3%, 6월 -16.1%, 7월 -13.6%, 8월 -9.0%

· 그러나,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수입물가는 전월대비로는 4.4%나 상승

※ 두바이 유가(월평균, 달러/배럴) : 2023.7월 80.5 → 8월 86.4

· 8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공산품 품목의 물가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력·가스·수도·폐기물과 농림수산품 품목의 물가는 올라 1.0%를 기록해 상승세로 전환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5월 0.5%, 6월 -0.3%, 7월 -0.3%, 8월 1.0%

· 전월대비로도 생산자물가는 0.9%의 오름세를 지속하는 상황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4%로 7월의 2.3%에서 오름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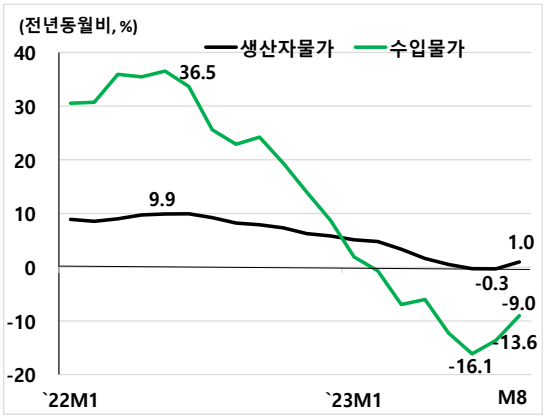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및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하면서 3.4%를 기록해 전월(2.3%)대비 1.1%p 확대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4월 3.7%, 5월 3.3%, 6월 2.7%, 7월 2.3%, 8월 3.4%

·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7월 1.8%에서 8월에 3.9%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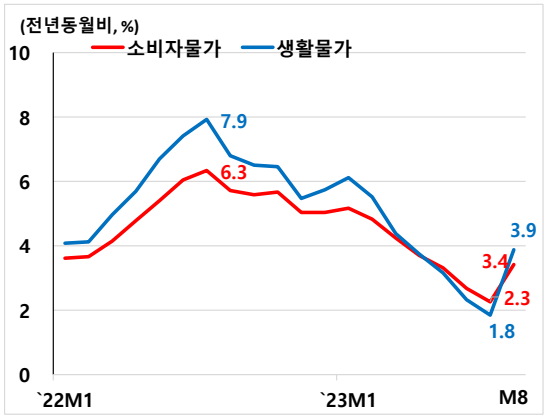
※ 생활물가상승률(YoY): 4월 3.7%, 5월 3.2%, 6월 2.3%, 7월 1.8%, 8월 3.9%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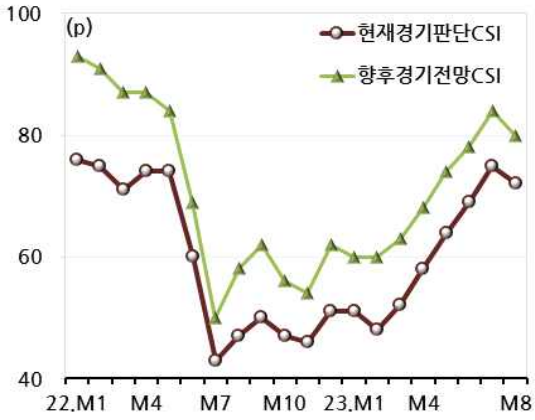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경제 심리의 정체) 가계의 소비 심리는 최근 개선세가 정체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투자 심리도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

-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에 103.1p로 7월(103.2p) 수준을 유지
  · 그러나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7월 75p에서 8월 72p로 소폭 하락함
    ※ 현재경기판단 CSI: 3월 52p, 4월 58p, 5월 64p, 6월 69p, 7월 75p, 8월 72p
  · 8월 향후경기전망 CSI도 80p로 지난 7월의 84p보다 하락함
    ※ 향후경기전망 CSI: 3월 63p, 4월 68p, 5월 74p, 6월 78p, 7월 84p, 8월 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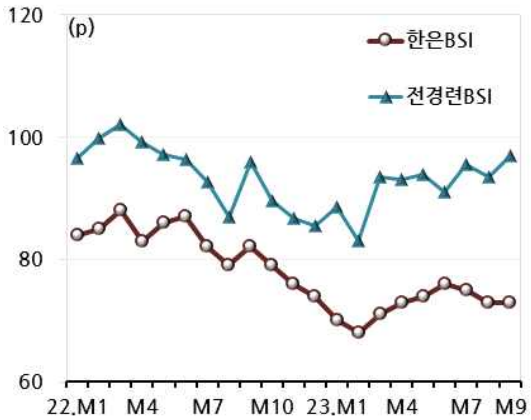
- 9월 중 전경련 BS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한은 BSI는 보합[5)]
  · 전경련 BSI(전망)는 9월 96.9p로 8월의 93.5p보다 소폭 상승함
    ※ 전경련 BSI(전망): 2월 83.1p, 3월 93.5p, 4월 93.0p, 5월 93.8p, 6월 90.9p, 7월 95.5p, 8월 93.5p, 9월 96.9p
  · 반면,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8월 73p에서 9월 73p로 보합세를 나타냄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2월 68p, 3월 71p, 4월 73p, 5월 74p, 6월 76p, 7월 75p, 8월 73p, 9월 73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5)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전망의 배경

○ (글로벌 경기: 소폭 개선)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전환, 제조업 경기의 개선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단,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선진국 통화정책의 누적효과로 회복 정도는 기대보다 미약할 전망

- 선진국 경기 : 통화정책 과잉대응(overkill)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해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 고강도 통화정책의 누적효과와 더불어 잠재된 금융불안의 재현 가능성으로 내년도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 단,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의 피크아웃(peak out)으로 가파른 경기 둔화세는 피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경기 : 글로벌 교역의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성장률은 차별화될 전망
  - ·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신흥국 경기는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 단, 중국은 부동산발 경기둔화 우려와 미·중 갈등 영향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교역 : 제조업 경기의 개선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나,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및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와 같은 하방압력이 회복세를 제한

< 주요 전망기관들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전망 >

(%)

구분	IMF('23.07)		OECD('23.09)		World Bank('23.06)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3.0	3.0	2.7	2.1	2.4
선진국	1.5	1.4	-	-	0.7	1.2
미국	1.8	1.0	2.2	1.3	1.1	0.8
유로지역	0.9	1.5	0.6	1.1	0.4	1.3
일본	1.4	1.0	1.8	1.0	0.8	0.7
신흥개도국	4.0	4.1	-	-	4.0	3.9
중국	5.2	4.5	5.1	4.6	5.6	4.6
인도	6.1	6.3	6.3	6.0	6.3	6.4
브라질	2.1	1.2	3.2	1.7	1.2	1.4
러시아	1.5	1.3	0.8	0.9	-0.2	1.2
세계 교역증가율	2.0	3.7	-	-	1.7	2.8

자료 : IMF(2023년 7월), OECD(2023년 9월), World Bank(2023년 6월).
주 : 경제성장률의 경우 IMF와 OECD는 PPP(Purchasing-power-parity), World Bank는 시장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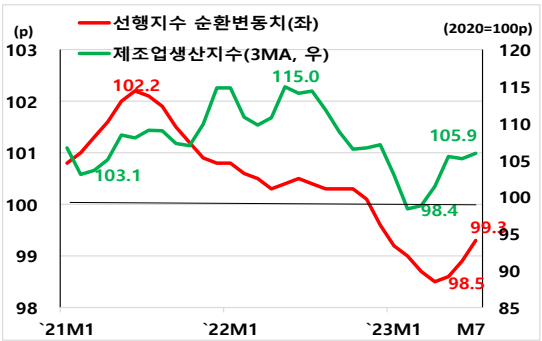
○ (국내 경기: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과 이로 인한 제조업 경기의 개선, 기저효과로 회복세 전환 기대. 단, 경제성장률은 현재 대내외 복합불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저점 형성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전망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경기개선을 예고하는 가운데, 작년 이후 침체가 지속되었던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일부 완화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고점 형성 이후 23개월간 하락하였으나, 지난 2023년 4월 저점(98.5p)을 기록한 이후 3개월간 상승
  - 제조업 생산지수(3개월 이동평균, 원지수)는 작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올해 2월 상승세로 반전

-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저점의 형성이 상당 기간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매판매 증가율(3개월 이동평균, 전년동월대비)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 또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5월까지 반등하다가 이후 급락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023년 4월 100.3p, 5월 100.3p, 6월 100.1p, 7월 99.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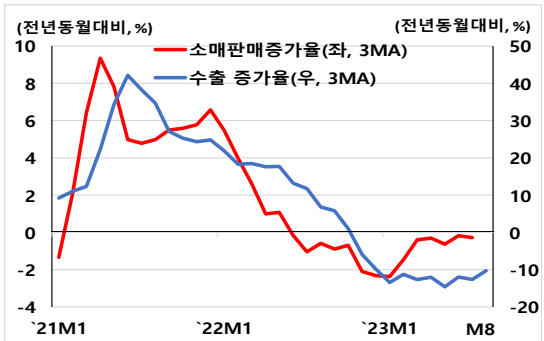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후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과거의 추세와는 달리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
  ※ 경제성장률(%): 1998년 -5.1%→1999년 11.5%, 2009년 0.8%→2010년 6.8%, 2020년 -0.7%→2021년 4.3%

<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OECD.
주: 제조업생산지수(원지수)는 3개월 이동평균.

< 소매판매 증가율 및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KITA.
주 : 3개월 이동평균

3.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 2024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2%를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와 하반기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 성장률 개선, 연간 2.2% 전망. 지표상 상반기(2.3%)가 하반기(2.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올해 상반기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상·하반기 경기 흐름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기저효과와 대내외 여건의 소폭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은 개선될 전망
  - 지표상 상반기 성장률(2.3%)이 하반기(2.1%)보다 높아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이는 2023년 상반기의 낮은 성장률(0.9%)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단,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소비 : 완만한 회복세. 연간 2.2%(상반기 2.0%, 하반기 2.4%)
  -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가계 소비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고금리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의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단, 누증된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소비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연간 0.5%(상반기 -0.5%, 하반기 1.5%)
  - 원부자재 가격과 금융 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단, 2023년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내년도 건설투자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 : 소폭 증가세로 전환. 연간 1.5%(상반기 -2.0%, 하반기 5.0%)
  - 글로벌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단, 미·중 반도체 갈등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는 설비투자의 회복세를 제한할 전망

- **수출입 : 증가세 전환 전망. 수출 연간 8.9%(상반기 12.5%, 하반기 5.6%), 수입 연간 2.8%(상반기 3.0%, 하반기 2.6%)**
  - 2024년 수출입 증가율은 2023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
  - 수출의 경우 2024년 세계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수입 수요가 소폭 반등하고,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
  - 단, 중국의 경기침체,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주요국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에 따른 수출 침체 지속 가능성도 상존
  - 수입은 2023년 대비 국내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되면서 증가세 전환 전망
  - 한편, ICT투자 침체, 건설수주 불황 심화 등 경기 여건상 수입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확대 전망. 연간 420억 달러(상반기 120억 달러, 하반기 300억 달러)**
  - 경상수지는 수출 반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허용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폭 완화 등으로 2023년 대비 증가할 전망[6)]

- **물가 : 하향 안정화. 연간 2.5%(상반기 2.7%, 하반기 2.4%)**
  -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유국 감산 기조로 인한 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상승세 둔화 폭은 제한적일 전망
  - 한편,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고용 : 고용시장 소폭 둔화. 실업률 연간 2.9%(상반기 3.2%, 하반기 2.6%), 신규 취업자수 연간 23만 명(상반기 15만 명, 하반기 31만 명)**
  -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하는 등 고용 여건이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제조업 및 건설업 경기의 부진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로 고용시장 전반이 기대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음

6) 2023년 현재(1월~7월) 월평균 내국인 출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15~'19)의 82.5%를 회복한 반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61.1% 수준임. 특히, 중국의 내수침체가 심화할 경우 단체관광객 여행 재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4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3.9) >

구 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6**	0.9	1.5	**1.2**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1.3	**2.2**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0.5	**1.2**	-0.5	1.5	**0.5**
	설비투자 (%)	**-0.9**	5.3	-5.4	**-0.1**	-2.0	5.0	**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8**	24	250	**274**	120	300	**420**
	무역수지 (억 달러)	**-478**	-265	24	**-241**	19	123	**142**
	수출증가율 (%)	**6.1**	-12.4	-2.1	**-7.4**	12.5	5.6	**8.9**
	수입증가율 (%)	**18.9**	-7.7	-12.5	**-10.1**	3.0	2.6	**2.8**
소비자물가상승률 (%)		**5.1**	4.0	2.7	**3.4**	2.7	2.4	**2.5**
실업률 (%)		**2.9**	3.0	2.7	**2.8**	3.2	2.6	**2.9**
취업자수 증감(만 명)		**82**	37	21	**29**	15	31	**23**

4. 시사점

○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024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저성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기 저성장 우려 불식을 위해 경제 펀더멘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4년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통화정책은 국내의 물가 불안 현상 재현 가능성, 한·미 금리 차 확대 우려, 높은 국내 금융 불안정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를 완화하는 경우 시장의 경기 회복 가속 기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인플레이션 자극 회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 해결이 우선되고 있는 재정정책 역시 2024년 상반기 지출 비중과 활용도를 높여 경기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 목표 달성을 꾀해야 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간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개혁의 연착륙 등을 통해 장기 저성장 우려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둘째, 2024년에도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2024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지연 가능성,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제원자재 가격 재불안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대외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이고 대외 리스크의 현상과 진행 방향 및 전망에 관한 적절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어나운스효과(announce effect; 발표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FTA 등 경제블록 단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광역 단위의 안전핀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

- 국내 통화 및 금융 정책 역시 물가, 금융 불균형 개선 등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함과 동시에 시장 불안 재현 시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수단 및 체재를 강화해야 함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선순환 고리 형성의 출발점인 수출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 기존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는 물론 원유, 광물, 곡물 등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역내 신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 방위산업, 식품과 화장품 및 가전을 포함한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는 물론 한류(韓流)와 이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망라해 차세대 K-콘텐츠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자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내수 회복 촉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투자 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 소득,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 형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

-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의 경우 인재 양성부터 R&D와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민간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이와 함께 AI, 로봇, 바이오, 6G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선진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투자는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가속화해야 함

다섯째, 국제원자재 가격 재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 공급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비용전이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실물은 물론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우려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제유가의 경우 OPEC은 물론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OPEC+)의 원유가격 방어를 위한 감산기조 장기화,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르는 수요 부문 압력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 불안정세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타 원자재 가격 역시 수요 압력 상승 우려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 자원국 수주의 강화 등에 의한 공급 차질로 불안 현상 재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은 물론 국제곡물 및 주요 광물의 비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수급 불안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